

‘부상병동’ 제주 시즌 초반 난관 봉착

2023 K리그1 4라운드 FC서울에 1-2 석패
개막 이후 4경기 무승... 리그 10위 머물러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홈 경기에서 FC서울에 일격을 당하며 올 시즌 개막이후 4경기 연속 무승으로 시즌 첫승은 고사하고 풀체력을 격격하는 신세가 됐다. 특히 제주의 개막 이후 4경기 연속 무승은 K리그2로 강등되는 성적을 낸 2019 시즌으로 10경기만에 첫승을 기록한 이후 4년만이다.

제주는 지난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FC서울과의 경기에서 자책골 허용과 경기종료직전 극장골을 내주며 1-2로 패했다. 4경기를 치르는 동안 2무(2패)에 따른 승점 2에 그치며 강원FC와 동률을 이뤘으나 득실 차에 앞서 10위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은 이날 승리로 2018년 8월 4일 이후 리그 11경기 만에 제주에게 승리를 거뒀다. 4년 7개월만의 승리인 셈이다.

이날 경기는 양 팀 최고의 스타 구자철과 기성용의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제주는 또다시 부상자가 나오면서 시즌 초반 고난의 행군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비의 핵심 정운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제주는 현재 주장 최영준을 비롯 중원을 책임지는 이창민과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센터백 임채민과 연제운, 한종무가 전력에서 이탈했다. 직전 라운드에서는 공격수 진성욱까지 햄스트링으로 부상병동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4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경기에서 양 팀의 대표적 스타이자 절친인 구자철과 기성용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 됐다. 그나마 A매치 휴식기가 예정돼 있어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로서는 시즌 초반 첫 위기에 봉착했다.

한편 제주는 2주간의 A매치 휴

식기 이후 다음달 1일 5라운드에서 울산현대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이어 강원FC, 수원삼성과 하위권 탈출을 위한 단두대 매치를 벌이게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출신 박민호 서울마라톤 1위

2시간10분13초 개인 최고 기록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유력

박민호(코오롱·사진)가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2023 서울마라톤 남자 국내부 정상에 올랐다.

제주출신(제주중 졸업) 박민호는 19일 서울시 광화문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는 마라톤 폴코스(42.195km)를 2시간10분13초에 달렸다.

지난해 4월 서울마라톤에서 작성한 2시간11분43초를 1분30초 단축한 개인 최고 기록이다.

1999년생인 박민호는 2019년 2시간15분45초, 2021년 2시간13분43초, 2022년 2시간11분43초로 속력을 높이며 올해 2시간10분13초까지 기록을 앞당겼다.

이번 대회에서 박민호는 ‘2시간10분 벽 돌파’에 도전했다.

최근 한국 남자 선수 중 2시간10분 안에 폴코스를 달린 선수는 케냐에서 귀화한 오주환이다. 오주환은 귀화 후인 2019년 10월에 2시간8분42초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선수를 기준으로 하면 2011년 3월 정진혁(2시간9



분28초) 이후 2시간10분 벽을 넘어선 마라토너가 없다.

박민호는 이날 아쉽게 2시간10분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올해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사실상 확보했다.

대한육상연맹은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열리는 국내외 마라톤 대회 기록을 살펴 항저우 대표 남녀 두 명씩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주환과 국내 랭킹 1, 2위를 다투는 박민호의 입지를 고려하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제주 초·중 유도, 전국 정상 메쳤다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양현서·김고은·문지현·양아름 금메달
한라유도클럽은 남초부 단체전 준우승

한라유도클럽이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남초부 준우승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라유도클럽은 18일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2023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및 꿈나무선수 평가전을 겸해 열린 남초부 단체전에서 탐동초에 석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민용, 양준훈, 안우영, 강지웅으로 팀을 구성한 한라클럽은 이날 첫 경기에서 동향의 탐동초를 맞아 접전끝에 신승한 뒤 8강전에서 용화초를 3승 1무 1패로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올랐다. 신철원초와의 준결승전에서도 3승 2무로 제압하며 대망의 결승전 무대에 진출했다.

제주선수단은 앞서 열린 초·중 등부 개인전에서도 금 4, 은 2, 동 4개 등 모두 10개의 메달사냥에 성공했다.

여중+70kg급의 김고은(노형중)은 지난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차은서(신현여중)를 맞아 허리기술 한판으로 제압하며 정상에 우뚝 섰다.

동향 선후배끼리 맞붙어 관심을 끈 여중-57kg급에서는 선배 문지현(플라이유도센터)이 후배 박유주(플라이유도센터)에게 한판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여초부 -44kg급의 양아름(에스 유도클럽)도 금메달 행렬에 합류했다. 양아름은 준결승전에서 이재희(문선초)를 되치기에 이은 굳히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남초부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라유도클럽. 위 왼쪽부터 한라유도클럽 강명덕 관장, 강지웅, 안우영, 양준훈, 고민용, 아래 왼쪽부터 중등부 이현성, 강지성, 강지진, 문한강.

기 절반으로 제압한 뒤 최종전에서 윤서진(의정부시 G-스포츠클럽)을 업어치기 절반 2회를 묶어 한판승으로 매듭지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치러진 남중부 -48kg급에서 양현서(제주

서중 3)가 금메달을 따냈다. 양현서는 지난해에는 -45kg급에 출전해 선배들의 틈바구니속에서도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일찌감치 올 시즌은 자신의 해로 출발을 했다.

조상윤기자

대기고·서귀포축구센터 서전 승리

2023 축구리그... 서귀포고, 오현고 제압

대기고가 제주제일고를 제압하면 서울 시즌 전국고등축구리그에서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대기고는 지난 18일 제주시 삼양구장에서 열린 제주제일고와의 2023 제주 고등축구리그 1차전에서 상대 자책골과 골잡이 허은제의 골을 묶어 2-0으로 승리했다.

서귀포고도 윤대경의 결승골에 힘입어 오현고를 1-0으로 꺾었다. 디펜딩 챔피언 서귀포축구센터는 제주중앙고를 맞아 소나기골을 터트리며 7-0 대승을 기록했다. 서귀포축구센터는 오윤제와 임현수가 멀티골을, 이윤건과 송민서 김윤후도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리그 개막전으로 열린 서귀포FC와 서귀포원인FC의 경기는 접전끝

에 손율의 멀티골을 기록한 서귀포FC가 2-1로 승리했다.

이날 제주중앙구장에서 계속된 중등리그에서는 오현중과 제주제일중, 서귀포리더스FC가 승점 3점을 챙겼다. 오현중은 서귀포중을 2-0으로, 제주제일중은 지난 시즌 후반기 우승팀인 제주중앙중을 1-0으로 물리치며 나란히 2승을 기록했다.

같은 날 제주시 이호구장에서 이어진 제주시 초등리그에서는 외도초가 제주동초를 4-0으로, 제주서초는 LOJE유나이티드를 4-2로 꺾었다. 또 서귀포리더스FC블루는 제주유나이티드를 7-2로 격파하면서 양 팀 모두 1승1패씩을 기록하게 됐다.

조상윤기자

당선 축 취임

CONGRATULATIONS

하귀농협 조합장	한경농협 조합장	서귀포시축협 조합장	조천농협 조합장	김녕농협 조합장	함덕농협 조합장	모슬포수협 조합장	제주시농협 조합장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제주시산림조합 조합장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
강병진 (본회 이사)	김군진 (본회 이사)	김용관 (본회 이사)	김진문 (본회 이사)	오충규 (본회 이사)	현승중 (본회 이사)	문대준 (본회 지구회장)	고봉주 (본회 위원)	고권진 (본회 위원)	김근선 (본회 위원)	강철호 (본회 위원)

당선 및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회 장 고 영 두

· 수석부회장 오순자 · 부회장 고성기, 신동운, 박남규, 신영민 · 감사 강대경, 김봉옥 · 운영실장 양성훈 외 위원 일동